

이긴자 일대기 [21]

11년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혹해지는 연단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진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로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늘의 3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지휘관이 예하 장병들의 근무평정표에 점수를 매기고 의견을 적기도 하는데, 일곱째 천사는 육군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몇 번 제대원서를 적어 내어도 제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육군본부 부관참모부에 근무하는 동기생에게 물어보고서야 알게 되어서, 일곱째 천사는 편법을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전에 일곱째 천사가 영모님으로부터 꿈 안찰을 받기 전에는 밤낮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몸이 쇠약해져 폐결핵에 걸리었는데 꿈 안찰을 받고 나서 그것이 깨끗하게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엑스레이(X-RAY)를 찍어보면 그 부분이 희끗하게 찍혀 나오므로 그것을 잘 아는 같은 군 동기생이 되는 군 의관에게 보여주면서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병 제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11년간의 군대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군대의 상관에 대한 복종심과 충성심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을 일곱째 천사에게 심어주기 위해 연단의 장소로 활용하셨기 때문입니다.

1963년 7월 31일, 일곱째 천사는 장교생활 11년 만에 육군중위로 제대한

뒤, 열두 부양가족을 데리고 소사 신앙촌(신앙공동체마을)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 받은 퇴직금을 사기꾼에게 몽땅 사기를 당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진 돈이 떨어져 가족들이 굶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장사라도 해보려고 신앙촌 내에 있는 공장을 찾아가 물건을 대주면 장사를 해보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소사 신앙촌 내에서 마귀로 찍혀 모두들 외면하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조 중위 마귀가 왔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떠미는 등 상대조차 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공장으로 갔으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 같은 마귀한테 물건을 대주었다가는 마귀로 찍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당신이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만제단에 올라가면 안내원들이 “마귀가 왔다.”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주먹으로 귀통이를 쥐어박거나 매를 때려 푸

른 명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루라도 예배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로 노고산(老姑山, 일명 露求山로구산이라고도 함) 산 정상에 있는 오만제단을 향해서 올라가면 마귀새끼가 온다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일곱째 천사를 붙잡고 으스스한 소나무 숲속에 끌고 가서는 모포를 뒤집어씌우고 발길질을 하고 개 패듯 하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뼈마디가 부러졌거나 골병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보호하신 까닭에 하룻밤만 자고나면 씌은 듯이 아픈 곳이 나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동생들이 눈치를 채고 흑 신앙촌(신앙공동체마을) 밖으로 나가버릴까 봐 매를 맞아도 매 맞은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은 날이면 매 맞은 자리를 손으로 비벼서 푸른 자국을 없앤 뒤에야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번 해가 진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일곱째 천사는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웃으면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안내원이 제단 현관문을 지키고 서서 마귀라고 예배를 못 보게 하기에, 영모님 설교 말씀을 멀리 숲에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소리로만 들어야 했고 그토록 보고 싶은 영모님 얼굴을 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예배 인도자 오만제단에 올라가실 때 차에 타신 모습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리면서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라도 뵈을 수 있을 때는 너무나무 감개무량하고, 반갑고 고마운코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곤 했습니다.

또 영모님이 단상에서 예배를 마치고 승용차로 내려가실 때에 일곱째 천사는 급히 달음질쳐서는 도로변에서 서서 영모님께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때는 영모님께서 차를 잠깐 멈추신 뒤, 일곱째 천사에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 하는 사업은 잘돼?” 하시며 물어보시곤 했는데 영모님께서 일곱째 천사의 눈물을 보시면서 당신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가시곤 했습니다.

영모님이 차 안에서 일곱째 천사한테 안부를 묻는 모습을 목격한 신앙촌 사람들 몇명은 그 다음부터 일곱째 천사를 마귀라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수많은 신앙촌 신자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안내원들은 예배시간만큼은 제단 맨 끝 구석자리에 앉아 예배 보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여 눈물로 예배를 보았고, 어떤 경우에는 안내원을 피하여 제단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들기면 매를 맞으면서 끌려나왔습니다. 그 못매를 맞고 집으로 가라고 하면 집으로 가는 척 하고 소사 삼거리 쪽으로 걸어나가서 농장 근처의 학교 쪽으로 해서 오만제단을 향해서 기어서 올라가면 “저 마귀새끼가 또 기어 올라온다.”고 하면서 주먹만한 돌로 머리를 향해서 맞아 죽어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돌이 날아와서 배에도 맞고 정강이도 맞으면서 절뚝거리면

서도 계속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죽고 싶은가?”하고 또 개 패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예배를 보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고로, 추운 겨울에는 탄약고 있는 곳으로 올라가 오들오들 떨면서 오만제단을 바라보며 예배를 보기도 하며 또 계수리 쪽 산기슭에 있는 수세식도 아닌 냄새나는 공중화장실에서 예배를 보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 중위는 마귀’라고 하면서 오만제단 주일학교 반사를 하던 여동생을 ‘조 중위 마귀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제명해버렸으며 남동생이 신앙촌 안내원으로 있었는데 마귀동생이라 하여 안내원에서 제명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형님, 신앙촌에서 나갑시다. 형님같이 충성하는 자를 마귀라고 조롱하니 여긴 있을 곳이 못 됩니다.”라고 하면서 모두 나가자고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아니야, 성경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구절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몹시 사랑하시는코로 징계하시는 것이야.” 하며 동생들을 달랬습니다.

열두 식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다

소사 신앙촌 내에서 마귀로 찍혀 모두들 외면하는코로 공장에도 나갈 수 없고 공장의 물건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일곱째 천사 집에는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

이 일곱째 천사는 김포 큰아버지 댁에 가서 쌀을 좀 빌려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큰 아버지는 “야! 이 새끼야, 집 팔아서 신앙촌에 들어간 미친 자식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쌀 타령이냐? 너같이 정신 못 차린 새끼는 굶어 죽어도 마땅해.”라고 욕설만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괜찮겠지?’하고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쌀 한 말을 꾸어 달라고 했더니 작은 아버지는 한 술 더 떠서 욕을 할 뿐만 아니라 대뜸 꾸짜대기까지 걸기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얼른 돌아서 가는데 쫓아와서 불가짜를 뱉다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너무 놀라서 절뚝거리며 정신없이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박대를 받고 영등포에서 소사 신앙촌까지 차비가 없어 밤늦도록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걸으면서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 저는 굶어도 좋으니 신앙이 없는 가족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촌에 있는 집에 와서는 2층 골방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죽게 된 인생들을 이 거룩한 땅에까지 끌고 오는 것을 허락하셔서 소사신앙촌에 입주를 시켜주셨사오니, 이 열두 식구를 여기서 나가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부디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쌀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이었으나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영생의 길은 강자가 가는 길!

The path of eternal life is the path of the strong!

이긴자하나님이 되려면 공격해 오는 마귀를 모질게 밟아서 짓이겨야한다.
To become Victor Christ, you must firmly crush and destroy the devil that attacks you.

이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다.
This does not mean killing a person.

그 사람 속의 마귀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다.
It means killing the devil inside that person.

자신을 이겨야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를 이긴 이긴자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You must first defeat yourself—only then can you overcome the devil, the god of death, and become Victor Christ.

이긴자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Without becoming Victor Christ, you cannot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nor can you receive eternal life.

자신을 못 이겨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Those who cannot overcome themselves and are prisoners of the devil cannot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승리자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Only by becoming the victorious God can you gain eternal life.

이 길은 승리자, 강자가 가는 길이다.
This path is for the victor, the strong.

강자가 되려면 끝까지 참는 인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To become strong, you must have endurance until the very end.

인내력은 연단 속에서 생긴다.
Endurance is built through training and trials.*

사업을 시작하다

일곱째 천사는 “나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 가족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작정 서울로 가고픈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걸어가면서 ‘서울, 어디로 갈까? 그레 영등포에 옛날 신앙동료들이나 찾아가보자’하고 소사 신앙촌의 영모님 댁과 범박 우체국을 지나 복숭아밭에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영등포 당산동 지관에 다닐 때 알고 지내던 유 집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유 집사라는 분은 아들에게서 삼만 원을 받고 ‘이 돈을 누구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을까, 갯돈을 내놓을까’하고 궁리하다가 ‘조 전도사님께 맡기면 가장 신용있겠다’ 싶어서 소사 신앙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막연히 만나려고 오는 중인데 여기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니 참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유 집사님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이자를 드리고 필요하실 때 돌려 드리겠습니다.”하고 그 삼만 원을 받아 가지고 쌀 한 가마를 1,800원에 사서 집에 들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집 쓰는 화물용 일제 자전거를 하나 사 가지고 신앙촌 폴라, 사이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60년도 그 당시 쌀 한 말에 몇 백 원 하던 때라 돈 삼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 되었습니다.

온양 전도사 시절에 알게 된 정성화 장모가 신앙촌 폴라, 사이다 공장에 빈 병을 납품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빈 병을 납품하면 돈을 주는 것

이 아니라 병납품 대금조로 폴라, 사이다를 트럭에 가득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 장모는 단국대를 나왔으며 군장교 출신으로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곱째 천사를 찾아와서 “나는 이렇게 많은 폴라, 사이다를 팔 능력이 없으니 조 전도사님께 이걸 대줄 테니 한번 팔아보세요.”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정 장모한테 삼만 원을 건네니까, “아니, 이렇게 큰돈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물으면서 만원만 받고 종로5가에서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곱째 천사는 폴라, 사이다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곱째 천사 생각으로는 무슨 물건이든지 신앙촌 물건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던코로 위에 시켜면 것이 동동 뜨는 신앙촌 폴라를 팔러 다녔던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질성 폴라, 사이다와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서울 시내 제과점, 다방, 구멍가게에까지 판매망을 넓혀갔습니다.

처음에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종로5가에 가게를 차리고 우선 자전거를 잘 타는 청년을 고용하여 서울 시내로 폴라, 사이다를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어느 주류 도매상회에 가서 “시는 폴라, 사이다를 좀 팔아보시지요. 맛이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라고 하며 판촉을 하였는데 주인이 폴라를 보더니 “이 새끼야, 이렇게 시켜면 것

이 동동 뜨는 것을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서 상품이라고 팔라 다니는 거야!” 하면서 따귀를 갈기고 면박을 주며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일곱째 천사는 좌절하며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나 같은 마귀새끼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신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판촉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그 매 맞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자전거를 타는 고용인 청년은 “전도사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면 또 맞을 텐데요.”라고 하니, “너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앞장 설 테니 잔말 말고 뒤에 따라와!”하고 그 주류도매상으로 향했습니다. 고용인 청년은 뒤에 쳐져도 한참 쳐져서 멀리서 자전거를 끌면서 슬금슬금 따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집은 두 번 다시 가지 않겠지만 일곱째 천사는 ‘나’라는 것이 ‘개’ 같은 마귀새끼’인 것을 아는 코로 ‘너는 더 천대를 받아야 마땅해. 가서 더 수모를 받아라, 이 마귀새끼야.’ 하고 마음의 싸움을 하면서 매 맞은 집으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일곱째 천사를 때린 주인아버지씨는 반색을 하며 반가이 맞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도 자전거를 타고 장사를 다닌 시절이 있다는 그 아버지씨는 젊은 청년이 먹고 살겠다고 장사하러 온 것을 안사면 될 터인데 괜히 사람을 때리고 구박까

지 했더라 지난 밤에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괜찮습니다. 신앙촌 폴라가 보기는 이래도 맛은 좋습니다. 한번 잡수어보세요.” 하면서 병뚜껑을 따서 맛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어제의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은 미안했던지 폴라를 받아서 병채로 단숨에 꿀꺽꿀꺽 마시더니, “야! 맛이기가 막히군, 젊은 친구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어제는 내가 성질이 못돼서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사과로 이 폴라를 팔아 줄 테니, 우선 몇 상자만 가져오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곱째 천사는 “사장님, 이렇게 큰 도매상에서 몇 상자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트럭 정도는 하셔야지요.”라고 하여 한 트럭의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 차떼기로 판매가 되었으며 점점 판매망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널리 알려진 질성폴라와 사이다의 판매가 줄어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질성회사 측에서 사람을 보내어 일곱째 천사를 스카우트하려고 보수는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질성에 와서 일 좀 해 달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 시은 폴라 사이다를 그만두고 질성 폴라 사이다를 하게 되면 나는 배신자가 됩니다.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질성에서 온 그 사람은 “요즘도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니 정말 감격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